

# 조선의 과거 새로운 연구 시작 발판

### 전북대 이재연구소,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6년간 19억8000만원 지원받아

전북대학교 부설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문학 분야에서는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전국에서 204개 연구소가 지원, 전북지역에서는 이재연구소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 이재연구소는 향후 6년 동안 19억8,000만원의 연구

비를 지원받아 조선시대 과거(科擧) 연보(年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조선 500여 년 동안의 과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이번 사업의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같은 관찬사서 뿐만 아니라 이재난고, 연려실기술과 같은 개인 문집, 그리고 각종 고문서에서 수집할 계획이다. 정리된 자료는 데

이터베이스(DB)로 구축, 조선시대 과거제도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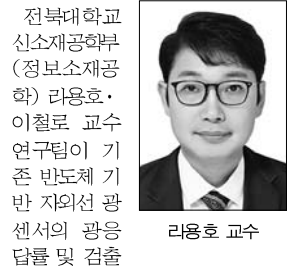
한문종 소장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과거였다. 날마다 전국 어느 곳이나 과거에 관한 행사가 있었고, 사람들 누구나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이유로 일찍부터 과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고, 현재까지 연구성과도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는 과거와 관련한 자료

들을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이재연구소가 조선시대 과거제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본 사업의 결과물이 조선의 과거(科擧)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울러 조선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자외선 검출 고효율로 가능

### 전북대 라용호·이철로 교수팀 초고감도 반도체 광센서 기술 개발



라용호 교수



이철로 교수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 라용호·이철로 교수 연구팀이 기존 반도체 기반 자외선 광센서의 광응답률 및 검출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마이크로선 반도체 광검출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술은 그동안 고효율 구현이 불가능했던 자외선 검출을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고감도·고효율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최위 권 학술지 중 하나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19.0, 상위 4.2%)' 최신호에 게재됐다.

광센서용 반도체 소재 중에서 질화갈륨(GaN)은 고온 안정성, 긴 수명, 낮은 구동 전압 및 저소비전력, 그리고 초소형 박형화가 가능해 차세대 광센서 중에서 가장 유망한 물질 중 하나로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질화갈륨 반도체 소재 안에 높은 결합 밀도 낮은 광전도성 이득, 그리고 낮은 전하 캐리어 이동도는 고효율의 광센서 제작 및 상용화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이러한 광 전도성 이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비표면적이 극대화 된 질화

갈륨 마이크로선 구조를 유기금속화학 증착법(MOCVD)을 통해 개발한 것.

기존에 광센서용 반도체 소재에서 는 효율 저하의 주원인이 되는 전위 결함을 '폴-프렌켈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전위 결함을 전하 장벽이 아닌 전자 캐리어의 이동 경로로써 이용하는 신개념의 에너지 밴드갭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정립했다.

이번에 개발된 자외선 반도체 광센서는 기존의 필름 구조의 자외선 반도체 광센서에 비해 비표면적 및 캐리어 이동도가 수십 배 이상 증가된 광 응답률 및 검출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은 유기금속 화학증착법(MOCVD)을 통해 제조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며 "향후 자외선 반도체 광센서뿐만 아니라 가시광 광센서에도 응용이 가능해 미래의 자율주행, 의료, 우주 및 군사, 신재생 에너지, 사물 인터넷, 광통신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핵심 소재 기술 개발은 연구팀의 임대영 박사가 제1저자로 실연에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나노및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은성 기자

## 대학문화 중심 '동아리' 도민들에 널리

### 전북지역 4개 대학 동아리연합회 전북대 대학로서 문화축제 개최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4개 대학(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이 지난 5일 전북대 대학로에서 '전북 대학로 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아리연합회에 따르면 대학 문화의 중심인 동아리를 널리 알리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전북대 동아리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정례화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대학로 문화축제를 기획했다.

이에 전북권 동아리 협의체 학생들은 전북대 앞 대학로에 무대를 세우고 각 대학별 동아리들이 공연을 펼쳤다. 다채로운 부스행사와 대학로 가요제, 대학로 포차 등을 통해 대학로 앞 상인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양요봉 총장도 함께 해 대학 간 학생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격려했다.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4개 대학(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이 지난 5일 전북대 대학로에서 '전북 대학로 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 각 대학의 개성을 살린 긍정적 방향으로 동아리 발전을 도모했다.

양요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대학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 우리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과 지역대학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플랫폼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학생 자발적인 대학 간 교류와 지역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전북지역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가진 우수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하려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북대 이상호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지역사회의 중

심적인 대학과 대학 문화의 중심인 대학 동아리들이 함께 지역사회의 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 대학 동아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양분이 되고, 지역 상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병원형 위센터, 학생 마음건강 돌봄에 효과

(Wee)

### 학생 90%·학부모 96% 마음성장에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형 위(Wee)센터'가 학생 마음건강 돌봄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병원형 위(Wee)센터 이용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은 90%, 학부모는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병원형 위(Wee)센터 이용 이후 학생은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2%, '정서적 어려움을 해

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 대상 설문에서는 '센터 이용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나 보호자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스트레스가 감소됐다', '성격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많이 좋아진 거 같다' 등 정서와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최근 자해 및 자살 시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맞춤형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는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의 '진단·상담(교육)·치료'를 One-Stop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

### 도교육청, 학교장 연수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도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민원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민원처리의 학교장 책임제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해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수 내용으로는 민원 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할을 비롯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4법,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민원 처리 및 학부모 상담 방법까지 학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상급기관으로 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교육청에 특이민원대응팀을 구성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민원처리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장들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수업 혁신' 실천 수석교사 모집

### 유 1·초등 5·중등 10명 등 총 10명... 12일까지 서류 접수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수업 혁신을 실천할 수석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2024학년도 전라북도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1명·초등 5명·중등 10명 등 총 16명을 선발한다.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 결원교과인 공업 3명과 결원교과 외 교과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교과에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인 경우 '결원교과 외 교과' 선발 인원에 포함해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024년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교사다.

다만 도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또 징계 의견 요구 중이거나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그 외에 징계처분 후 말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교사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오는 12

일까지 유·초·중학교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국립·특수·고등학교 교사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진지문서 및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11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간 각급 학교에 배치돼 동료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우석대 한의학과 재학생 '국제분자과학저널' 논문 등재

### "호로파, 당뇨 환자 콜레스테롤 등 개선 효과 입증"

우석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원·김아림(이상 3년)·노우정(2년) 학생의 공동 연구 논문이 SCI급 학술지인 국제분자과학저널 9월 호에 등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등재된 논문은 '호로파(fenugreek)가 제2형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김영식(한의예과)교수와 최유민(한의학과)교수가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 논문은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호로파(蒴藋)가 제2형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비롯한 혈당 관련 지표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혈중 지질 관련 지표들에서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담고 있다.

특히 호로파의 항당뇨 효과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기존 약물치료만



이 아닌 한약재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 및 관리 방법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김영식 교수는 "호로파가 당뇨 예방 및 관리에 안전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밝혀 줬다"면서 "호로파의 복용 형태와 성분별 효능에 따른 혈당 및 혈중지질 변화를 확인하고, 한의학 임상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지역 청소년 교육 소외 해소 온라인 교육장 구축

###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농업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과 협약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마사회 장수부장, 장수청년산사공,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장수아이온홀 이매우터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장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영상교육 스튜디오 및 교육장 구축을 위한 장비 지원 △온라인교육 매뉴얼 개발 및 강사 지원 △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총 4회차로 시범 운영되며, 1·2회차 교육은 메타버스 코딩을 교육하고, 3·4회차 교육은 영상 편집 및 제작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은 장수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장수청년산사공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